

역사·문화 길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례: 강원도 영월 김삿갓길과 일본의 시코쿠순례길

김진범(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원(국토연구원 연구원)

- ‘길’은 옛적부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를 나누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지자체별로 길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길로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영월 김삿갓길’과 ‘일본 시코쿠순례길’은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 길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바람직한 역사·문화 길 조성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영월 김삿갓길’은 김삿갓 탄생 20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한 행사로서 삿갓과 지팡이 등 김삿갓 복장을 하고 김삿갓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영월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것이 특징임
 - ‘일본 시코쿠순례길’은 시코쿠 4개 현 전역에 있는 88개의 사찰을 삿갓과 백의(白衣) 등 복장을 하고 순례하는 길로 ‘시코쿠관광역지방계획’의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 김삿갓길과 시코쿠길 사례를 통해 도출한 ‘역사·문화 길’ 삼위일체 조성전략

→ *Walk* + *Story-telling* + *Performance* 융복합화

Walk 강변길, 숲길, 해안길 등 다양한 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길 조성

Story-telling 다양한 역사 속 사건·사고에 얽힌 이야기 거리와 배울거리를 다양한 유·무형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다채로운 길 조성

Performance 지역명사의 고유복장이나 지역전통 복장 등을 하고 역사 속 인물이 되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 제공(예: 삿갓, 도포, 지팡이, 괴나리봇짐 등)

1. '역사·문화 길' 가치 재조명과 활용

● 걷기문화의 급속한 확산

-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自然歩道)', 제주 '올레길' 등이 알려지면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음
- 걷기관광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여 주변 경관감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걷기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거리 제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한 '길'에 대한 재조명

- '길'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는 지역이 가진 명소,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임
- '길'을 광역적 차원에서 연결하여 여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역사·문화 길 만들기 방안 모색

- 걷는다는 것은 환경 친화적이며, 건전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자, 자연과 문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국토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걷기문화의 새로운 형태인 '영월 김삿갓길'과 '일본 시코쿠순례길' 사례 검토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길'로 연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의 길만들기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영월군 김삿갓길 걷기 행사



출처: 뉴시스, 2010년 10월 10일자. 재인용.

[그림 2] 일본 시코쿠순례길 순례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0년 10월 9일자.

2. 영월의 김삿갓길

● 영월의 새로운 브랜드: 「김삿갓 면」과 「김삿갓 문화제」

- 조선후기 방랑시인 김삿갓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강원도 영월에서 자랐으며 전국을 유랑하다 전남 화순에서 타계하였고 그의 둘째 아들이 지금의 영월에 묘소를 마련함
- 김삿갓 묘소와 생가가 있는 하동면은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3개 도가 만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하동면’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2009년 행정 구역명을 ‘김삿갓면’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지역 브랜드 만들기를 추진 중임
- 1998년부터 매년 10월 초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강원도 시책 사업인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하나로 김삿갓 문학관을 개관함

[그림 3] 영월군 김삿갓면 위치



[그림 4] 김삿갓 문화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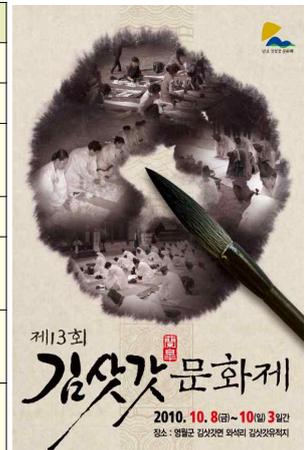


출처: 영월군청 홈페이지.

[그림 5] 김삿갓 문화제 행사내용과 포스터

구분	세부행사명
사전행사	전국민화공모전특별전, 독일민속미술작품특별전
추모행사	길놀이, 고유제, 헌다례
문학행사	전통한시백일장, 문학강좌, 김삿갓과 문학인의 만남, 전국학생일반백일장, 전국 휘호대회, 학술심포지엄, 전국 김삿갓만화그리기대회, 민화 속에 담긴 설화이야기
개막행사	개막식, 역대수상자 시비 제막식 및 시집 출판 기념회
공연행사	유랑광대던, 김삿갓 좋을시고, 대북공연, 매지 농악공연, 아울회공연, 여고 댄스동아리 공연, 어린이 가야금 연구
체험전시	인절미떡메치기, 짚풀공예, 민화판화체험, 대장간체험, 혼례복체험, 폼클레이 체험, 민속놀이, 시화전시, 한국화전시, 서화각전시회
기타행사	풍자와 해학의 김삿갓길 걷기, 외국인 및 추천작가 사진촬영대회, 행복미소 2011인, 망경대산 MTB라이딩, 전국 등반대회, 맨손으로 메기잡기

출처: 영월군청 제공.



출처: 영월군청 홈페이지.

● 김삿갓길 개요

- 2010년은 김삿갓 탄생 203주년을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의 명사 203인을 초청하여 ‘김삿갓길 걷기’를 추진한 것이 ‘김삿갓길’ 조성의 단초를 제공
- 2010년 10월 9일 개최된 제1회 ‘김삿갓길 걷기’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삿갓, 지팡이, 피나리붓짐을 제공하여 실제 김삿갓이 되어 방랑길을 나서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걷기 문화를 창출에 기여
- ‘김삿갓길 걷기’ 행사 구간은 김삿갓 문학관부터 생가터까지 왕복 4km 구간임(약 1시간 30분 소요)

[그림 6] 김삿갓길 걷기행사 모습



출처: 강원도민일보 제공.

- 향후 김삿갓면~영월읍까지를 연결하는 30km의 김삿갓길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은 일본 시코쿠순례길의 삿갓을 쓴 순례복장에서 착안하여 김삿갓이 정주했던 영월지역에 김삿갓길을 창조하고 영월군 및 시선 김삿갓유적보존회 등과 함께 제1회 김삿갓길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도자 역할

● 김삿갓길 매력요소

- 청정 자연환경: 영월군 김삿갓면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 계곡물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청정지역임
- 역사적 인물: 김삿갓이 머물던 장소, 만났던 인물, 벌어진 사건 등 다양한 역사 속 배경과 이야기 거리가 김삿갓이 오가던 김삿갓길로 연결
- 김삿갓 고유의 복장: 실제 김삿갓 복장을 하여 김삿갓이라는 역사 속 인물이 되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삿갓, 도포, 지팡이, 피나리붓짐 제공)

[그림 7] 김삿갓 유배지 전경



출처: 영월군청 홈페이지.

- 다양한 자원의 융복합화: 자연환경,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거리, 독특한 복장이 융복합화(삼위일체)되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역사·문화의 길’이 탄생함
- 길을 통해 걷고, 이야기를 듣고 즐기며, 실제 김삿갓이 되어 보는 체험은 기존의 길과는 차별성을 지님

● 김삿갓길의 브랜드: 김삿갓 복장

- 김삿갓길은 맨 처음 시코쿠순례길의 삿갓을 쓴 전통복장에서 착안하였으며 이를 영월의 역사적 인물인 김삿갓에 적용시켜 삿갓, 지팡이, 두루마기, 짚신, 곶나리붓짐 등을 하고 길 걷는 것을 제안함
- 김삿갓은 조부를 비난한 데 대한 자책으로 22세에 삿갓을 쓰고 방랑길에 나섰으며 운명하던 57세까지 삿갓을 쓰고 전국을 방랑하여 김삿갓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음
- 김삿갓의 삿갓, 두루마기, 지팡이 복장은 무소유, 불효에 대한 뉘우침, 청빈과 절제, 자연과 하나됨, 세상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상징함

[그림 8] 김삿갓길 걷기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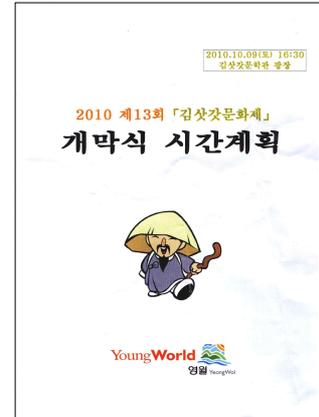


사진: 영월군청, 강원도민일보 제공.

● 김삿갓길의 명품화를 위한 노력

- (맞춤형 수요에 대응)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을 ‘역사적 인물’로 엮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걷기문화와 걷기수요에 적절히 대응
- (주변자원과의 연계) 영월군 내의 청령포(단종 유배지), 다하누촌, 동강 어라연 등 주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 도모) 입지적 특성상 연접한 경북, 충북지역까지 모두 다양한 테마길로 연결하여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 도모
- (다양한 주체 참여)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그룹-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삿갓길을 조성
- (선도적 리더의 존재) 강원도민일보 사장, 영월군수 등 김삿갓길을 창도한 리더그룹 존재
 - 제1회 ‘김삿갓길 걷기행사’는 강원도민일보·영월군·시선 김삿갓유적보존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강원도교육청·한국관광공사·영월군의회·한국길포럼이 후원하는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최됨

[그림 9] 김삿갓문화제 개막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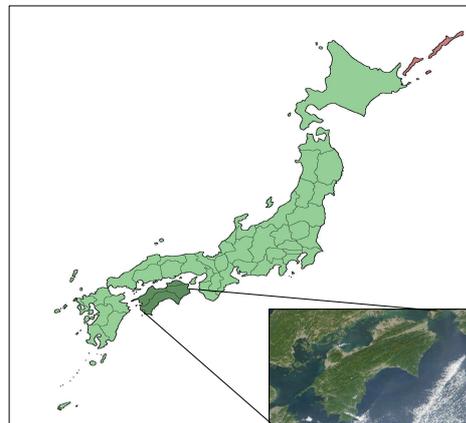
자료: 영월군청 제공

3. 일본의 시코쿠순례길

● 시코쿠지역의 개요

- 시코쿠(四國)지역은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 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면적은 전국의 약 5.0%(1.8만km²), 인구는 약 3.2%(약 410만명), GRDP(지역총생산액)는 약 2.6%(약 14조엔)를 차지하며, 카가와(香川)·토쿠시마(徳島)·코치(高知)·에히메(愛媛) 등 4개의 현(県)으로 구성

[그림 10] 시코쿠지역의 위치와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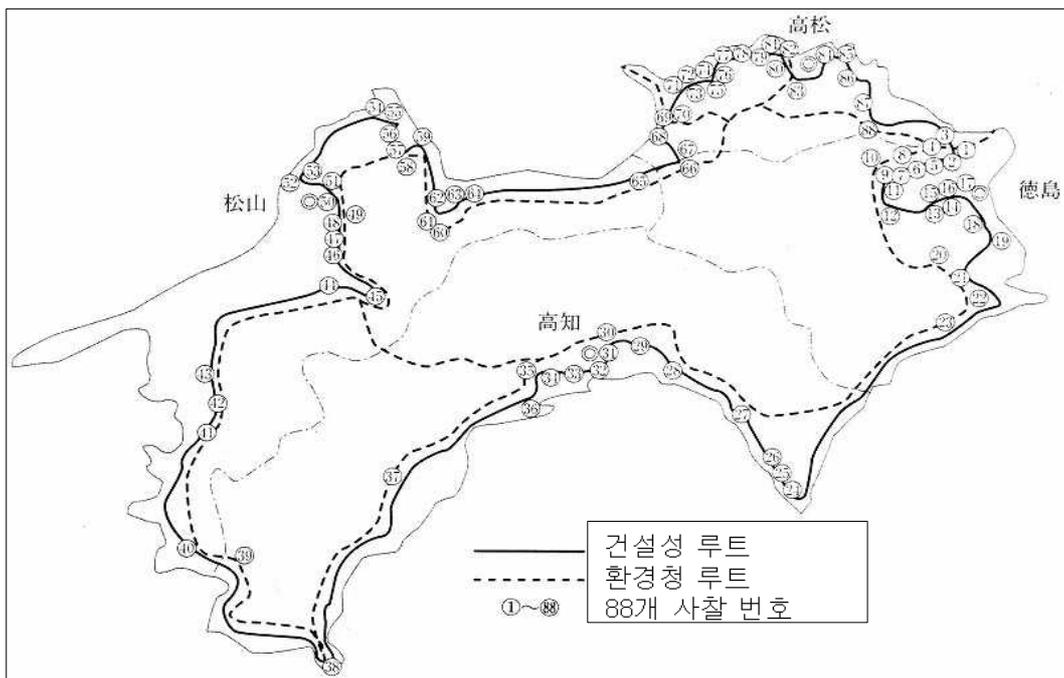
자료: <http://ja.wikipedia.org/>

- 시코쿠권은 면적의 약 75%가 산림이며,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풍경,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활풍경 등 뛰어난 인문·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
- 시코쿠지방에는 ‘시코쿠순례길(四国遍路)¹⁾’ 등의 신앙문화와 ‘아와오도리(阿波おどり)’ 무용문화, 마쓰야마성(松山城) 건축문화와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시코쿠순례길은 19세기 중엽 에도(江戸)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에 걸쳐 일본 전국에서 순례자가 방문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시코쿠순례길의 뜻과 규모

- 시코쿠순례길이란 시코쿠지역에 있는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뜻하며, 이들 사찰은 모두 코보대사(弘法大師)²⁾라는 승려와 연고가 있는 곳임
- 순례길은 시코쿠지역의 해안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길이는 1,500~1,600km에 달하며, 걸어서 약 50~60일 정도가 소요됨

[그림 11] 시코쿠 88개의 사찰 순례길 정비현황: ‘건설성 루트’가 순례길에 가까움



자료: 建設省四国地方建設局, 1999. 平成11年度道路事業概要 ‘四国の道路’

1) 편로(遍路)란 일본어로 ‘헨로’라 읽으며, ‘기원하기 위해 시코쿠지방의 코보대사(弘法大師)의 영장 88개소 등을 순례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뜻함. 이 글에서는 편의상 ‘순례길’로 번역함.
 2) 코보대사(774~835년)의 법명은 구카이(空海)로서 당나라의 밀교(密敎)인 진언종을 직접 일본으로 들여온 고승.

● 시코쿠순례길의 형성과정

- 19세기 초의 시코쿠순례길은 수행승이 수행하는 길이었으며, 코보대사도 그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음
- 코보대사 입적 후 수행승들은 대사가 수행의 장소로 이용하였던 88개의 사찰을 따라 순례여행을 떠났으며, 이것이 시코쿠순례길의 원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88개 사찰의 건립은 16세기 말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8개소의 의미에 대해서도 ‘88개의 번뇌’, ‘쌀 미(米)의 분해(八十八)’ 등 여러 설이 있음
- 근대에 시코쿠순례길이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자, 1942년에는 88개 사찰이 모두 참가하는 ‘시코쿠 88개소 영장회(四国八十八ヶ所靈場会)’를 구성하여 순례길을 체계적으로 정비³⁾
- 역사·문화·환경자원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건설성과 환경청은 1972년 수립된 제3차 국토계획에 근거하여 각각 1,300km와 1,550km의 순례길 정비사업을 개시함
- 최근에는 신앙심보다는 자아 탐구, 심신의 치유 등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연간순례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됨(이 중 약 5천 명은 전 구간을 걸어서 순례하는 사람으로 추정)
- 순례길에는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특히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어린이·영세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것이 단순한 참배객들과 큰 차이를 보임

[그림 12] 1930년대에 제작된 시코쿠 88개 사찰 안내도



자료: 早稲田大学道空間研究会의 홈페이지(<http://www.littera.waseda.ac.jp/pilgrimage/shikoku/>)

3) 현재 순례길의 유자재생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는 ‘헨로미치 보존협회(へんろみち保存協力会)’임

● 시코쿠순례길 복장

- 순례길 복장의 기본은 백의(白衣)와 지팡이, 삿갓, 가사(袈裟), 붓짐 등임
- 백의는 마음을 비우고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을, 지팡이는 코보대사를 의미함

● 시코쿠순례길과 나눔문화

- 순례객들이 시코쿠순례길 순례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순례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대(接待)’라는 나눔문화가 크게 작용
- 접대란 순례하는 사람에게 음식이나 ‘젠콘야도(善根宿)’라는 숙박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주민들의 풍습을 뜻하며, 이러한 시코쿠 주민들의 나눔문화는 일반서민들에게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됨

● 시코쿠순례길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노력

- (광역권지방계획 선도 프로젝트 추진) 4개 현에 걸쳐 있는 시코쿠순례길은 ‘시코쿠는 하나’라는 이념 아래, ‘시코쿠권광역지방계획(2009)⁴⁾’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선도 프로젝트에서 역사·문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류공통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을 알리고 주유(周遊)형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제시

[그림 13] 순례자들의 모습



자료: <http://ja.wikipedia.org/>

[그림 14] ‘료젠지(靈山寺)’와 순례자들



자료: <http://ja.wikipedia.org/>



자료: <http://keijiban.e-topia-kagawa.jp/>

4) ‘광역지방계획’이란 복수의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으로서, 일본의 국토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형성계획’과 블록별로 수립하는 ‘광역지방계획’으로 구성됨

- **(순례길 주변지역 활성화)** 주변·순례길의 문화적·광역적인 경관의 보전을 위해 4개 현과 관련 시정촌이 연계하여 ‘경관계획’과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향상계획’⁵⁾ 등을 수립하여 순례길 주변지역 활성화
- **(안전하고 쾌적하게 순례할 수 있는 환경정비)** 순례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순례길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휴게소·공중화장실 등 정비
-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보전 및 활용)** 시코쿠 사찰 88개소와 순례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국인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자원봉사가이드의 육성, 수학여행과 비즈니스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메뉴·모델코스 개발, 순례문화를 테마로 한 영화·드라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4. 역사·문화 길 활용형 지역발전을 위한 시사점

● ‘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역발전의 촉매제

- ‘길’을 통해 사람은 목적지로 이동하며, 때로는 자연을 접하고, 때로는 길가 상점에 들르며, 시장이나 축제가 열릴 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길 문화’가 창조됨
- ‘길’이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예: 보부상길, 암행어사길, 과거시험길, 한계령길 등)
- 지역발전을 위한 길만들기 측면에서 김삿갓길과 시코쿠순례길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길만들기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음

- 1 지역고유의 유·무형 자원 활용
- 2 지역자원의 광역적 연결
- 3 차별화된 길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테마 활용
- 4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 유도
- 5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그룹 존재
- 6 유·무형 자원 차세대 계승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5) 2008년 5월 일본 고유의 역사적인 건조물과 풍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지역의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歴史的風致の維持及び向上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

● ‘역사·문화 길’ 만들기 기본원칙

- **협력체계 구축:** 루트 설정 등을 위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합의가 형성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 **역사·문화·자연환경 훼손 방지:** 루트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노면 정비와 사인표식, 썸지공원, 휴게소, 인포메이션센터 등 하드웨어 사업을 역사·문화·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면서 추진
- **주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유도:** 하드웨어를 주민들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 등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루트 유지·홍보활동(잡초 제거, 표지판 설치, 가이드맵, 현장가이드 등) 참여기회 적극 지원
-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 활용:** 샷갯 등 전통기술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속제품, 지역 토산품 등과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WSP 삼위일체 실천전략

Walk 강변길, 숲길, 해안길 등 다양한 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길 조성

Story-telling 다양한 역사 속 사건·사고에 얽힌 이야기 거리와 배움거리를 다양한 유·무형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다채로운 길 조성

Performance 지역명사의 고유복장 또는 지역전통 복장 등을 하고 역사 속 인물이 되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 제공(예: 샷갯, 도포, 지팡이, 괴나리봇짐 등)

[그림 15] 삼위일체 실천전략 개념도



- *Walk* + *Story-telling* + *Performance* 세 가지 요소의 융·복합화(삼위일체)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걷기 문화를 창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 모색

- ‘길’은 옛적부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를 나누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보부상길, 암행어사길, 과거시험길 등은 과거 서울과 지방,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광역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자동차를 위한 도로(대부분 국도)로 대체되었거나,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속의 길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음
- 아직 남아 있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옛길을 발굴하고 적절히 보전·복원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전통가옥이 남아 있는 마을, 역사적인 유적과 전통축제 등을 광역적인 옛길로 연결하여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지역 간 연계·교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중앙정부는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광역적인 옛길의 복원·정비·활용사업을 지원하여 ‘역사·문화 길’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필요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김진범 책임연구원 (031-380-0144, jinbkim@krihs.re.kr)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원 (031-380-0284, jepark@krihs.re.kr)